

# RAG\_material

## 금융상품 추천

### <투자의 3원칙>

- 안전성: 원금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
- 수익성: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 유동성: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1. 선택하신 상품인 **보통예금**은 은행에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기본 예금 상품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어 안전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매우 낮아 수익성은 낮지만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해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선택하신 상품인 정기예금은 일정 금액을 고정 기간 동안 예치해 높은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어 안전성이 높습니다. 고정 금리로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며, 만기 이전에는 입출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선택하신 상품인 **MMDA**는 고액 예금자에게 유리한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어 안전성이 높습니다.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해 유동성이 매우 높고, 일정 금액 이상 예치 시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4. 선택하신 상품인 **CMA**는 투자와 예금을 결합한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 증권사가 관리하여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이 반영되어 수익성이 높지만, 시장 변동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해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5. 선택하신 상품인 **MMW**는 금융기관이 고객 자금을 단기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 증권사가 관리하여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 금리 수준에 따라 이자를 제공해 수익성이 중간 정도입니다.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해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6. 선택하신 상품인 **정기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어 안전성이 높습니다. 정기적으로 납입하며 안정적인 이자를 제공하나, 만기 이전에는 입출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선택하신 상품인 **자유적금**은 납입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어 안전성이 높습니다. 납입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만기 이전에는 입출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선택하신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전용 적금 상품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어 안전성이 높습니다. 청약 기회를 제공하며, 낮은 이율로 수익성은 낮습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어 유동성이 낮습니다.
9. 선택하신 상품인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 부도 위험이 거의 없어 안전성이 높고, 장기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 수익성은 낮으나, 거래 시장이 활발해 유동성이 높습니다.
10. 선택하신 상품인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 국채보다 안전성은 낮지만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지역 개발 자금 조달에 사용됩니다.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1. 선택하신 상품인 **특수채**는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 정부와의 연계로 안전성이 높지만 공공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함께 국채보다는 약간의 위험과 높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2. 선택하신 상품인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입니다.
- 은행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유지되며,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유동성이 높아 시장에서 쉽게 거래되지만, 금융기관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선택하신 상품인 **회사채**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 높은 금리를 제공해 수익성은 높지만 안전성은 낮습니다. 기업의 신용 등급과 재무 건전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기업의 회사채인 경우 유동성이 높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낮을 수 있습니다.
14. 선택하신 상품인 **해외채권**은 외국에서 발행된 채권입니다.
- 발행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집니다. 글로벌 다각화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환율 변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따라 일부 채권은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15. 선택하신 상품인 **RP(환매조건부채권)**은 일정 기간 후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 발행기관의 신용도가 높다면 안전성이 높습니다. 단기 이자 수익을 제공하나, 수익률은 중간 수준입니다. 만기 이전에는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선택하신 상품인 ETN(상장지수채권)은 특정 지수나 자산의 수익률을 따르는 채권 상품입니다.
- 발행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집니다. 기초 지수에 따라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주식 시장에서 거래 가능해 유동성이 높습니다.
17. 선택하신 상품인 ELB(주가연계채권)는 주가 지수에 연계된 원금 보장형 채권 상품입니다.
- 원금 보장이 가능해 안전성이 높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습니다. 만기 이전 해지가 어려워 유동성이 낮습니다.
18. 선택하신 상품인 DLB(파생결합채권)는 다양한 자산과 연계된 원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 원금 보장이 가능해 안전성이 높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습니다. 만기 이전 해지가 어려워 유동성이 낮습니다.
19. 선택하신 상품인 **보통주**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주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안전성이 낮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과 자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므로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20. 선택하신 상품인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 배당 우선권이 있지만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주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안전성이 낮습니다. 배당금이 우선적으로 지급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가 상승도 있지만 보통주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이 보통주보다 낮습니다.
21. 선택하신 상품인 **후배주**는 채권자와 보통주 주주보다 후순위로 청구권을 가지는 주식입니다.
- 우선주 및 채권자보다 먼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 안전성이 낮지만,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성공적인 투자 시 높은 자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일반 주식보다 거래가 제한적이므로 유동성이 낮습니다.
22. 선택하신 상품인 **혼합주**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주식입니다.

- 보통주보다는 안전하지만 우선주보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배당과 자본 이익을 모두 기대할 수 있어 수익성이 중간 수준이며, 시장에서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이 보통주보다 낮습니다.
23. 선택하신 상품인 **상황주**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주식입니다.
-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안전성이 낮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불황일 경우 손실 위험이 큼니다. 주식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므로 유동성이 높습니다.
24. 선택하신 상품인 **전환주**는 일정 조건 하에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주식입니다.
- 전환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므로 초기에는 안전성이 높으나, 거래가 제한적입니다. 보통주로 전환 시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유동성이 높아집니다.
25. 선택하신 상품인 **공모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운용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므로 비교적 안전성이 높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며,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 수익성은 중간 수준입니다. 일정 기간 후 환매가 가능하지만, 즉시 출금은 제한될 수 있어 유동성이 높진 않습니다.
26. 선택하신 상품인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운용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므로 안전성이 낮습니다. 전문적인 운용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환매 제한이 있어 유동성이 낮습니다.
27. 선택하신 상품인 ETF(상장지수펀드)는 주식처럼 거래 가능한 펀드 상품입니다.
-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기초 자산의 변동성에 따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 지수 또는 특정 테마에 연동되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해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28. 선택하신 상품인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기 위한 투자 증권입니다.
-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이 낮지만, 성과가 우수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특정 계약에 기반하여 거래가 제한적일 수 있어 유동성이 낮습니다.
29. 선택하신 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주식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된 수익구조를 가진 상품입니다.

- 기초 자산의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원금 보장이 가능하지만, 안전성은 중간 수준입니다. 기초 자산 변동성이 적으면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만기 이전 해지가 어려워 유동성이 낮습니다.
30. 선택하신 상품인 DLS(파생결합증권)는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다양한 자산에 연계된 상품입니다.
- 기초 자산의 변동성에 따라 안전성이 낮을 수 있지만, 특정 조건 충족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이전 해지가 어려워 유동성이 낮습니다.
31. 선택하신 상품인 ADR(미국예탁증서)는 외국 기업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증서입니다.
- 해당 기업과 발행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여 자본 이익과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어 유동성이 높습니다.
32. 선택하신 상품인 GDR(글로벌예탁증서)는 여러 국가에서 거래 가능한 외국 기업 주식 증서입니다.
- 발행 기업과 국가의 신용도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안전성이 다릅니다. 글로벌 시장 접근으로 다양한 수익 기회를 기대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거래소별 유동성이 다르지만, 대체로 활발하게 거래되어 유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33. 선택하신 상품인 **파생상품**은 주식, 채권, 통화 등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크고, 레버리지로 인해 손실도 확대될 수 있어 안전성이 낮습니다. 변동성을 활용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거래 시장과 상품 종류에 따라 유동성이 다르며, 일부 파생상품은 즉시 거래가 가능해 유동성이 높습니다.
34. 선택하신 상품인 **장외상품**은 정규 거래소가 아닌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의존하고, 레버리지로 인해 손실도 확대될 수 있어 안전성이 낮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수익성이 높지만,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하므로 유동성이 낮습니다.
35. 선택하신 상품인 CFD(차액결제거래)는 자산의 실물 소유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차액만 결제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로 손실 가능성이 커 안전성이 낮습니다.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모두 투자 가능하여 수익성이 높으며, 주요 금융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 가능해 유동성이 높습니다.

36. 선택하신 상품인 ELW(주식워런트증권)는 주식이나 지수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권리를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 옵션 성격으로 고위험 상품이라 안전성이 낮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 가능하므로 유동성이 높습니다.

37. 선택하신 상품인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므로 안전성이 낮지만, 성과가 우수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유동성이 낮습니다.

38. 선택하신 상품인 **연금보험**은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은퇴 후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므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투자 수익에 따라 수익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중간 수준입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유동성이 낮습니다.

## 투자 성향에 따른 금융상품 추천

### 투자성향별 투자전략

투자성향별 투자전략은 투자자의 위험 감내 수준과 수익 목표에 따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별 특징, 투자전략, 추천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안정형

안정형 투자자는 예금이나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상품을 활용하고자 하며, 원금 손실 우려가 없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CMA와 MMF 같은 상품이 바람직하며, 추천 금융상품으로는 예금, 현금성 자산, RP,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 AA등급 이상의 회사채, 매우 낮은 위험(6등급) 펀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낮은 위험(5등급) 이하로 분류된 펀드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 국고채 등이 권장됩니다.

#### 2.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자산의 일부를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장기 회사채 펀드와 같은 채권형 펀드가 적합하며, 추천 금융상품으로는 A- 등급 이상의 금융채 및 회사채, 원금보장 ELB/DLB, 낮은 위험(5등급) 펀드, 보통 위험(4등급) 이하로 분류된 채권형 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 3.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면서 일정 수준의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 수준의 상품을 활용하고자 하며, 중위험 펀드로 분류되는 적립식 펀드나 주가연동상품이 적합합니다. 추천 금융상품으로는 채권혼합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공모주 펀드, 회사채, CP, 전단채, 후순위채권, 낮은 위험(4등급) 펀드, 다소 높은 위험(3등급) 펀드, 그리고 80% 이상 원금 부분보장형 ELS 등이 있습니다.

### 4.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보전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주식형 펀드, 원금 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금융상품으로는 주식 직접투자, 주식형 펀드, ETF, ELS, DLS, 주식형 랩어카운트, 높은 위험(2등급) 펀드, 다소 높은 위험(3등급) 펀드, 하이일드 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식, 원금 비보장 지수형 ELS 등 높은 위험(2등급) 이하로 분류된 상품이 권장됩니다.

### 5.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투자자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 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며, 주식 비중이 70% 이상인 고위험 펀드가 적합합니다. 자산의 10% 정도는 직접 주식 투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금융상품으로는 BB 이하 등급의 회사채, 해외 주식 투자, 레버리지 ETF, 매우 높은 위험(1등급) 펀드, 신용거래 주식, 담보대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공격투자형 투자자는 매우 높은 위험 등급까지 분류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는 6단계로 나뉘며, 각각의 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1등급), '높은 위험'(2등급), '다소 높은 위험'(3등급), '보통 위험'(4등급), '낮은 위험'(5등급), '매우 낮은 위험'(6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각 상품 유형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도가 분류되며, B+ 이하 또는 무등급의 채권은 '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고, BB+에서 BB- 사이의 채권은 '높은 위험'에 속합니다. BBB+에서 BBB- 등급의 채권은 '다소 높은 위험,' A+에서 A- 등급은 '보통 위험,' AA- 이상은 '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정부보증채와 같은 채권은 '매우 낮은 위험'으로 평가됩니다.

**해외채권의 경우,** 국제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BB+ 이하의 해외채권은 '매우 높은 위험,' BBB+에서 BBB- 등급은 '높은 위험,' A+에서 A- 등급은 '다소 높은 위험,' AA- 이상은 '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위험도가 매우 높으며, 세부적인 등급 기준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RP와 외화RP의 경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세부 등급 기준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B 이하 또는 무등급의 경우 '매우 높은 위험,' A3+에서 A3- 등급은 '높은 위험,' A2+에서 A2- 등급은 '다소 높은 위험,' A1 이상은 '보통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파생결합증권(ELS/ELB)의 경우**, 원화로 거래하는 종목형 원금 비보장형 ELS는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며, 지수형 원금 비보장형 ELS는 '높은 위험'에 속합니다. 원금 부분 지급형(80% 이상 90% 미만 지급) ELS는 '다소 높은 위험,' 원금 부분 지급형(90% 이상 지급) ELS는 '보통 위험,' 원금 지급형 ELB는 '낮은 위험'으로 평가됩니다.

**파생결합사채(DLS/DLB)의 경우**, 원화로 거래하는 원금 비보장형 DLS는 '매우 높은 위험,' 원금 부분 지급형(80% 이상 90% 미만 지급) DLS는 '높은 위험,' 원금 부분 지급형(90% 이상 지급) DLS는 '다소 높은 위험,' 원금 지급형 DLB는 '보통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ELW의 경우**, 매우 높은 위험으로 간주되며, 추가 세부 기준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주식(ETF 및 ETN 포함)의 경우**, 신용거래나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관리 종목, K-OTC, K-OTC-BB, KONEX, 해외주식(ETF 포함), 레버리지 ETF 및 레버리지 ETN은 '매우 높은 위험'으로 평가됩니다. 일반 주식 ETF 및 ETN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으로 간주됩니다.

**Wrap 상품**은 투자 위험도에 따라 일반형 랩, 자산배분형 랩, 채권형 랩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별로 투자 대상과 구성 자산이 다릅니다.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 해당하는 일반형 랩은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인버스 ETN, 레버리지 ETN, K-OTC,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해외상장주식, 그리고 매우 높은 위험 펀드로 구성됩니다. 자산배분형 랩의 경우 국내 ETF, 해외 ETF, 펀드형 5.0 이하, GBI 5.0 이하로 구성되며, 채권형 랩은 회사채(B+ 이하), 신종자본증권, CP(B- 이하)를 포함합니다.

'높은 위험(2등급)'에서는 일반형 랩이 국내 상장 주식, 주식형 ETF, ETN, 높은 위험 펀드, 미국 상장 ETF(업종 및 테마)를 포함하고, 자산배분형 랩은 국내 ETF, 해외 ETF, 펀드형 4.8 이하, GBI 3.5 이하로 구성됩니다. 채권형 랩은 회사채(BB+ 이하)와 CP(B+ 이하)를 포함합니다.

'다소 높은 위험(3등급)'에 해당하는 일반형 랩은 업종 및 테마 ETF, 다소 높은 위험 펀드, 미국 상장 ETF(인덱스 및 대체투자)를 포함하며, 자산배분형 랩은 국내 ETF 4.5 이하, 해외 ETF 4.0 이하, 펀드형 3.6 이하, GBI 3.2 이하로 구성됩니다. 채권형 랩은 회사채(BBB+ 이하)와 CP(A3 이하)를 포함합니다.

'보통 위험(4등급)'의 경우, 일반형 랩은 인덱스 ETF, 대체투자 ETF, 보통 위험 펀드, 미국 상장 ETF(채권 및 회사채)를 포함하고, 자산배분형 랩은 국내 ETF 3.5 이하, 해외 ETF 3.0 이하, 펀드형 3.0 이하, GBI 2.9 이하로 구성됩니다. 채권형 랩은 회사채(A+ 이하)와 CP(A2 이하)를 포함합니다.



'낮은 위험(5등급)'의 일반형 랩은 채권 ETF, 회사채 ETF, 낮은 위험 펀드, 미국 상장 ETF(단기채권), 외화 RP로 구성됩니다. 자산배분형 랩은 국내 ETF 2.5 이하, 해외 ETF 1.8 이하, 펀드형 2.0 이하, GBI 2.6 이하로 구성되며, 채권형 랩은 회사채(AA- 이하), CP(A1 이하),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예치금, 증권사 발행 어음을 포함합니다.

'매우 낮은 위험(6등급)'의 일반형 랩은 단기채권 ETF(국채와 통안채 등), 매우 낮은 위험 펀드, 국내 RP 및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자산배분형 랩은 국내 ETF 1.5 이하, 펀드형 1.0 이하, GBI 2.3 이하(원화 투자만 가능)로 구성되며, 채권형 랩은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RP, CMA, 은행(AAA) 예치금, 증권 금융 예수금을 포함합니다.

Wrap 상품은 각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맞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공하며, 투자 등급 별로 세분화된 자산 구성은 투자자가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상품군별 위험등급은 투자자산의 특성과 위험 수준에 따라 6단계로 분류됩니다. 각 등급은 투자 대상의 수익구조, 투자 비율, 최대 손실률 등에 따라 정의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은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최대 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 **2등급(높은 위험)**은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 **3등급(다소 높은 위험)**은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 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 **4등급(보통 위험)**은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거나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 **5등급(낮은 위험)**은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거나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 **6등급(매우 낮은 위험)**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이 분류에서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 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으로 정의됩니다.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을 포함합니다.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등급 이상), CP(A2- 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으로 정의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산의 정의는 제조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는 출시 이후부터 등급 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집합투자증권 등)의 적합성 판단 기준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집합투자증권 등)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 투자자의 나이와 파생상품 투자 경험에 따라 적합한 상품 유형을 결정합니다.

65세 이상의 투자자로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지급형 상품이 적합합니다. 65세 이상이면서 투자 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부분지급형(80% 이상) 상품 또는 원금지급형 상품이 적합합니다. 65세 미만의 투자자나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그 외 일반 투자자는 원금지급형, 원금부분지급형, 원금비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경험 기간은 고객이 직접 작성한 투자자정보확인서의 답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고객의 투자성향등급과 선택한 상품의 위험등급이 서로 적합해야 합니다.

## 경제와 금융상품 관계

### 기본 경제 사이클

경기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생산활동이 활발해진다. 그리하여 고용이 증가하고, 기업이익이 증가한다. 기업이익의 증가는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풍족해진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시장에 돈이 돌면서 투자가 증가한다. 결국 총수요가 증가하고, 기업이 많은 이익을 보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역으로 경기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생산활동이 위축된다. 재고가 증가하고, 기업이익이 감소한다. 그리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는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불러온다. 기업의 약세로 투자가 축소되고 총수요가 감소한다. 최종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 경기 판단 지수

- 경기 선행 지수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경기종합지수 중 하나이다. 주식시장이 향후 시장을 선 반영하는 특징이 있기에 경기선행지수의 관찰이 중요하다. 경기선

행지수가 100 이상을 유지하거나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면, 기업의 실적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주식을 사는 것이 추천된다.

- 물가지수

: 물가지수가 상승세라면 주식을 사는 것이 추천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하여 4%를 넘어간다면 대다수의 주식을 팔고, 배당주만을 남기는 것이 좋다.

- 소비자 신뢰지수

: 소비자 신뢰지수는 소비자가 미래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높을수록 낙관적으로 느낀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다면 소비재 수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대한민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높다면 내수 소비업종이 유리하다.

## 경제 사이클에 따라 추천되는 산업군

경기 사이클에 따라 투자가 적합한 산업 부문이 존재한다.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는 식품, 제약과 같은 건강관리 부문과 생활 소비재와 같은 필수 소비재 부문이 유리하다.

경제가 정점을 찍은 후 침체 국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사회 전반에 생산이 감소하고, 이는 실업률 증가와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로 인해 금리가 인하되고, 기업들의 판매가 둔화된다. 이 때는 전기나 가스와 같은 공익 설비 부문이 유리하다. 이후 경기가 저점을 찍을 무렵에는 자동차와 주택이 유리하다.

금리 인하 기간이 지속되면, 대출이 증가하고 자동차와 주택 같은 고가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 여기에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실행되면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승세 초반에는 철도와 트럭 같은 운송 부문이 우세하다.

상승세 중반 단계에서는 공장의 수주와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생산력이 증가하고 설비 투자의 필요성이 생긴다. 따라서, IT와 같은 기술 부문과 자본재 산업 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경기가 정점에 다다르면, 철강이나 화학 등의 산업과 원자재 및 에너지 부문의 투자가 유리하게 된다.

## 금리 사이클에 따른 투자 방향

- 1단계. 금리 최고점 - '예금' 투자

금리가 가장 높은 시기에는 돈을 포함한 모든 물건에 대한 수요 또한 많아져 물가와 이자가 상승한다. 이 시기에는 예금이 추천된다. 타 금융상품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감소한다.

- 2단계. 금리 하락 단계 - '채권', '발행어음' 투자

수요와 공급의 원치에 따라 경기가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며 금리 또한 내려간다. 이 때는 채권이 추천된다. 채권은 은행 예금처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기에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면 조금 위험해도 이자가 다소 높은 채권에 투자한다.

- 3단계. 금리 최저점 - '부동산' 투자

이 시기에는 부동산을 투자한다. 금리가 저점이면 예금은 물론 채권도 이자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대출 이자도 거의 없으므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

- 4단계. 금리 상승 단계 - '주식' 투자

금리 상승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식 시장도 자연스레 활성화된다. 따라서, 금리 상승 시기는 주식이 선호된다.

## 채권과 금리의 상관관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비례 관계인데요. 왜 채권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일까요?

### 금리와 채권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까닭

금리가 올라가면 높은 금리의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기존에 발행한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채권 발행 기관은 더 채권을 팔아야 하니,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약속해주려 채권의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 예시로 알아볼까요?

원금이 100만 원이고 이자율이 연 3%대인 1년 만기 채권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1년 후 103만 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기준금리가 연 5%대로 오른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연 3% 채권을 팔고 금리 연 5%대의 상품을 사려고 하겠죠. 그럼 1년 후 10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살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금리와 약정 수익은 모두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은 내려간다 , 결국 채권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금리인데요.**

- 금리가 상승했다면, (높아진 금리에 맞춰) 새롭게 나오는 채권은 이자율이 높아져요.
- 금리가 상승했다면, 기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요.

따라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금리와 배당주 투자

금리 인하로 인해 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의 매력이 증가합니다.

금리 인하 시 **배당주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금리 하락**으로 배당주가 대안 투자처로 부각.
- 금리 인하로 인해 **안정적이고 고배당을 제공하는 기업**의 주가 상승 가능성.
- 유틸리티, 통신, 필수 소비재 업종의 안정적인 배당주.
-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여 배당 여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같은 방법을 활용합니다.
  - 금리가 인하되면:
    - 대출 이자율이 낮아져 **대출 비용 감소**.
    - 새롭게 발행하는 회사채의 **이자 비용 절감**.
  - 이는 기업의 고정 비용을 줄이고,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 기업이 금리 인하로 절감한 비용은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순이익이 증가하면 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배당금 지급 증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제공.
    2. **재투자**: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확장에 투자.
    3. **부채 상환**: 기존 고금리 부채를 상환하여 재무 건전성 확보.
  - 배당이 주요 정책인 기업(예: 배당주 위주의 기업)은 금리 인하로 생긴 여력을 배당 확대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이는 기업의 산업 특성과 재무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이나 배당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 상황에서는 배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기 불확실성**: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일 경우, 기업은 배당보다 재무 안정성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성장 전략 우선**: 배당 대신 새로운 사업 기회나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산업별 차이:** 금융업처럼 금리 환경에 민감한 산업은 금리 인하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배당 확대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 1.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

- **배당 성향**이란 기업이 순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은 보통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산업에 속하며, 성장보다는 주주 환원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유틸리티 업종

- 전력, 가스, 수도 등 필수 서비스 제공 기업.
- **특징:** 수요 변동이 적고, 경기 영향을 덜 받음.
- **예시:** 한국전력, 남부발전, 미국의 NextEra Energy.

### (2) 통신 업종

- 통신 서비스는 필수 소비재에 가까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보장됩니다.
- **특징:** 신규 투자가 크지 않아 잉여 자금을 배당으로 활용.
- **예시:** KT, SK텔레콤, 미국의 Verizon, AT&T.

### (3) 필수 소비재

- 식품, 음료,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
- **특징:** 경기 침체에도 수요가 꾸준함.
- **예시:** 대상, 오뚜기, 글로벌 기업으로는 Coca-Cola, Procter & Gamble.

### (4) 금융업

- 은행, 보험, 자산 관리 등 금융업은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징:** 수익성이 높고, 자본 배당이 주주 환원 정책의 핵심.
- **예시:** KB금융,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 삼성생명.

## 2. 배당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 배당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성장 산업**에 속하면서도 **재무 안정성**을 갖춘 기업입니다.
- 배당을 꾸준히 늘려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1) IT 및 기술 기업

- 전통적으로 IT 기업은 성장을 위해 재투자에 집중했지만, 최근 일부 대형 기술 기업은 배당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 **특징:** 성숙기에 진입한 기업이 잉여 현금을 배당으로 전환.
- **예시:** 삼성전자,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2) 헬스케어 및 바이오

- 고령화와 기술 발전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
- **특징:**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가진 기업들은 배당 여력이 큼.
- **예시:** 글로벌 제약회사 Johnson & Johnson, 한국의 유한양행.

## (3) 에너지 및 인프라

- 석유,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산업.
- **특징:** 장기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
- **예시:** S-Oil, ExxonMobil, Chevron.

## (4) 리츠(REITs)

-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임대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
- **특징:** 법적으로 배당 지급 비율이 높아야 함.
- **예시:** 롯데리츠, SK리츠, 글로벌 기업으로는 Prologis.

# 경기 사이클에 따른 섹터 ETF 투자

11개의 섹터는 반복되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실제 현실 경제와 산업을 반영해 국면 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준다. 경기 사이클의 4가지 주기 별로 유리한 섹터는 아래와 같다.

1. 회복기(경기 상승세) : 경기민감주인 IT와 경기소비재가 수익률이 높다.
2. 확장기(경기 정점) : 여전히 경기민감주가 강세를 보이며, 추가로 에너지와 헬스케어 투자가 유리하다.
3. 후퇴기(경기 하락세) : 경기방어주의 헬스케어, 필수소비재가 수익률이 높다.
4. 수축기(경기 저점) : 경기방어주인 필수소비재 등이 수익률이 높다. 또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IT 업종도 투자할만 하다.

# 달러 변동과 경기의 상관관계

KOSPI는 달러가 약세일 때 상승국면에 진입하는 패턴이 있다. 미국 기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1달러당 원화가 증가한다면, KOSPI는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달러가 약세이면, 비달러자산인 KOSPI에 돈이 공급되어 KOSPI가 상승된다. 또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수가 활발하게 일어남으로써 주가가 상승한다.

역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자산이 달러자산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증시, KOSPI는 하락세가 나타나게 된다. 달러 강세기에는 KOSPI가 일정 지수구간에 머무는 박스권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KOSPI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 대형주(대기업 주식)는 매매 횟수가 감소한다. 역으로 중소형주 특히 테마주의 경우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에 따른 ELS 투자방법

- 주가의 변동성이 높고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주가 변동성이 높고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위험 관리를 위해 쿠폰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방어적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손실이 있더라도 이미 지급 받은 월지급 쿠폰으로 상쇄가능한 '원금비보장 조기상환형 월지급 ELS'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 주가 변동성이 낮아지고 경기가 저점인 경우

변동성이 하락되어 쿠폰이 하락하는 시점으로 안정적인 주가흐름을 이용하여 공격적인 투자로 쿠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기상환 관찰 기간이 짧은 상품에 가입하여 빠르게 수익을 확정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로 '스텝다운 ELS'가 있다.

- 주가 변동성이 낮고 주가가 유지되는 경우

변동성이 낮은 상태에서 주가가 유지되는 것은 곧 주가 상승기에 돌입함을 나타낸다. 지금과 같은 박스권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높은 양방향 옵션 매수 포지션으로 제한적인 밴드 내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상품 가입이 필요하다. 예로 '양방향 KO Call ELS'가 있다.

-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주가의 상승폭이 크기에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의 상품이 유리하다. 예로 '슈팅업 ELS'가 있다.

- 주가 변동성이 낮고 경기가 고점인 경우

슈팅업 기초를 유지하되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원금보장수준을 낮춘 슈팅업 ELS'나 '베리어 옵션 결합 슈팅업 ELS'가 있다.

-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경기 하락이 시작될 경우

주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ELS 상품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 금융지수

## 1. 코스피 (KOSPI)

- **설명:**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종합주가지수**로, 한국 경제를 대표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대기업 중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산업 다양성:** 전자, 자동차, 화학,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시가총액 가중치:**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 

## 2. 코스닥 (KOSDAQ)

- **설명:** 기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개설된 **코스닥 시장**의 주가지수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을 대표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기술 및 바이오 중심:** IT,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소형주 비중 높음:** 규모나 안정성, 신용도는 코스피 상장기업보다 낮지만, 장래 고수익을 낼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 **높은 변동성:** 성장주 특성상 주가 변동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 

## 3. 나스닥 (NASDAQ)

- **설명:** 미국의 전자 주식 시장으로, 기술 중심의 혁신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기술주 중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혁신 기업 다수:** 신생 벤처기업부터 대형 기술 기업까지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 **높은 성장성:**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

## 4.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 **설명:**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주가지수 중 하나로, 30개의 대형, 공공 거래 주식 회사들의 주가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대형 우량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보잉, 코카콜라 등 **산업별 선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격 가중 지수:** 주가가 높은 기업이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산업 다양성:** 기술, 금융,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5. S&P 500

- **설명:**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지수 중 하나로, 미국 내 시가 총액이 큰 500개의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시가총액 가중치:**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산업 다양성:** 기술,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경제 지표:**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 

## 6. 닛케이 225 (Nikkei 225)

- **설명:**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25개 주요 기업의 주가를 기반으로 한 지수로, 일본 경제를 대표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제조업 중심:**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등 **제조업 및 기술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격 가중 지수:** 주가가 높은 기업이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글로벌 기업 다수:**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7. 상해종합지수 (Shanghai Composite Index)

- **설명:**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포함한 지수로, 중국 본토의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국영 기업 비중 높음:** 에너지, 금융, 통신 등 **국영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융 및 산업 기업:** 중국의 주요 은행, 보험사, 산업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내수 중심:**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 8. 러셀 2000 (Russell 2000) (계속)

- **설명:** 미국 주식 시장에서 소형주 기업들의 성과를 추적하는 지수로, **중소기업 경제의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소형주 중심:** 시가총액이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 **산업 다양성:** 소형주의 특성상 다양한 산업에서의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들을 포함.
  - **높은 성장성:** 대형주에 비해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짐.
  - **내수 시장 반영:** 글로벌 대기업이 아닌 미국 내 시장에 집중하는 기업 비중이 큼.

## 투자자들이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

- **포트폴리오 다변화:**

각 지수에 포함된 기업은 특정 국가나 산업군을 대표하므로, 여러 지수를 활용하면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는 안정적인 대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러셀 2000**이나 **코스닥**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경제 상황 판단 지표:**

각 지수의 변화를 통해 **국가별 경제 상황**과 **산업별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우존스** 상승은 대기업의 성과가 좋음을 의미하며, **러셀 2000** 상승은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 경제가 강세임을 나타냅니다.
- **ETF 투자:**

각 지수는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으로도 제공되므로, 직접 개별 주식을 구매하지 않고도 해당 지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예: 나스닥 지수는 **QQQ ETF**, S&P 500은 **SPY ETF**로 추적 가능.

## 1. FTSE 100 지수

- **설명:**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영국 경제를 대표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다국적 기업 다수:** HSBC, BP,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산업 다양성:**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합니다.
    - **수출 지향성:** 영국 외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아, 국제 경제 상황에 민감합니다.
- 

## 2. DAX 지수

- **설명:** 독일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가장 많은 3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독일 경제를 대표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제조업 중심:** 폭스바겐, 다임러, 지멘스 등 제조업과 공업 분야의 강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출 의존도 높음:** 독일 경제의 특성상,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 **기술 혁신:** 자동차, 기계, 화학 등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 3. CAC 40 지수

- **설명:**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4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프랑스 경제를 대표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명품 및 소비재 기업:**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 로레알 등 세계적인 명품 및 소비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에너지 및 금융:** 토탈에너지, BNP 파리바 등 에너지와 금융 분야의 주요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글로벌 시장 참여:** 프랑스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 

## 4. FTSE MIB 지수

- **설명:** 이탈리아 밀라노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4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이탈리아 경제를 대표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금융 및 에너지:** 유니크레디트, 엔이(Eni) 등 금융과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패션 및 자동차:** 프라다, 페라리 등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패션과 자동차 기업들도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내수 및 수출 기업 혼재:** 이탈리아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기업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 5. IBEX 35 지수

- **설명:** 스페인 마드리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35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스페인 경제를 대표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은행 및 통신:** 산탄데르 은행, 텔레포니카 등 금융과 통신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설 및 에너지:** 악시오나, 레프솔 등 건설과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도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라틴 아메리카 시장 연계:** 스페인 기업들은 역사적, 문화적 연계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 6. 항셍 지수

- **설명:**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홍콩 및 중국 본토 경제를 반영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금융 및 부동산:** HSBC, 섀훙카이 프로퍼티즈 등 금융과 부동산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국 본토 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본토 기반의 대형 기술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시아 경제 지표:** 아시아 경제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 7. S&P/ASX 200 지수

- **설명:** 호주 시드니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호주 경제를 대표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자원 및 금융:** BHP, 커먼웰스 बैं크 등 자원 개발과 금융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재 및 에너지:** 호주의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소재 및 에너지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계:** 호주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 8. TSX 종합지수 (S&P/TSX Composite Index)

- **설명:** 캐나다의 주요 주식 지수로, 토론토증권거래소(TSX)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포함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자원 중심:** 천연자원,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광산업 관련 기업 비중이 높음.
  - **금융 기업 강세:** 캐나다 주요 은행과 보험사들도 상위권에 위치.
  - **국내외 투자자 선호:** 캐나다 경제를 대표하며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기업 다수 포함.

## 9. 유로 스톡스 50 (Euro STOXX 50)

- **설명:** 유럽 경제를 대표하는 주요 50개 대형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로 이루어짐.
- **구성 기업 특징:**
  - **산업 다양성:** 금융, 소비재, 헬스케어, 기술 등 다양한 산업군이 포함됨.
  - **다국적 기업:** 유럽 대형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비중이 높음.
  - **경제 통합 지표:** 유럽의 경제 통합 상황과 경기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 10. MSCI 세계 지수 (MSCI World Index)

- **설명:** 전 세계 23개 선진국 시장에 상장된 약 1,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주식 지수.

- **구성 기업 특징:**

- **광범위한 대표성:** 선진국 시장 전반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며, 국가별로 비중이 다름 (미국 비중이 가장 높음).
- **산업별 균형:** 금융, 기술, 헬스케어, 산업재 등 다양한 섹터를 고르게 포함.
- **ETF 활용:** 글로벌 투자에 적합한 지수로, MSCI World Index를 추적하는 ETF가 인기.

---

## 11. BSE 센섹스 (BSE SENSEX)

- **설명:** 인도 봄베이증권거래소(BSE)에 상장된 주요 3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인도 경제의 흐름을 대표합니다.

- **구성 기업 특징:**

- **IT 및 통신:** 인도의 빠르게 성장하는 IT 산업과 통신 기업 다수 포함.
- **내수 기반:** 대형 소비재 및 금융 기업들이 포함되어 내수 경제를 반영.
- **높은 성장 잠재력:** 인도 시장의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음.

---

## 12. CSI 300 지수

- **설명:** 중국 본토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3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 **구성 기업 특징:**

- **국영기업 비중:** 에너지, 금융 등 중국 정부와 연관된 대형 국영기업 다수 포함.
- **기술주 증가:** 최근 몇 년간 반도체 및 IT 관련 기업의 비중 증가.
- **중국 경제 성장 반영:** 중국 내수 시장과 정책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

---

## 13. VN-Index (베트남 증권지수)

- **설명:** 베트남 호치민증권거래소(Ho Chi Minh Stock Exchange)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주가 흐름을 반영.

- **구성 기업 특징:**

- **소비재 및 부동산:**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의 부동산 및 소비재 시장 관련 기업 비중 높음.

- **높은 성장성:** 신흥 시장으로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 **경제 개발 지표:** 베트남 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시장 통합을 반영.
- 

## 14. 코스피 200 (KOSPI 200)

- **설명:**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을 선정하여 구성한 파생상품의 기초 자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지수.
  - **구성 기업 특징:**
    - **대형주 중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이 포함.
    - **산업 균형:** 전자, 자동차, 금융, 화학 등 다양한 산업군.
    - **파생상품 시장:** 코스피 200은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
- 

## 15. IBOVESPA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 **설명:** 브라질 상파울루증권거래소(B3)에 상장된 주요 60개 기업으로 구성된 브라질 주식 시장의 대표 지수.
- **구성 기업 특징:**
  - **자원 및 에너지:** 브라질 자원 중심 경제를 반영하여 원자재 및 에너지 관련 기업 비중이 높음.
  - **내수 및 농업:** 농업과 소비재 산업 비중도 큼.
  - **신흥 시장 반영:** 브라질 경제와 함께 변동성이 큰 신흥 시장 특징을 반영.